

# 한국전통혼례문화의 계승을 위한 혼례절차에 대한 미혼남녀의 인식연구\*

A Research on Perceptions of the Wedding Ceremony of Unmarried People for the  
Succession of Korean Traditional Wedding Culture

성신여자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조교수 주영애\*\*

Dept. of Family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an's Univ.  
Assistant professor: Ju, young-a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perceptions and awareness of traditional Korean wedding ceremonies. For this purpose, I began a literature review and investigated the consciousness about traditional Korean wedding ceremonies among unmarried people. As a result, I discussed the future of Korean wedding culture. Data were analyzed from the sample of 206 unmarried people collected from April 20 to Jun 13, 2009. The data were analyzed by making use of the SPSS program and included Frequency analysis, ANOVA and the  $\chi^2$ -test. The summary of these results was as follows. First, unmarried people want a special wedding ceremony. They think the appropriate age of marriage is between their 20s and mid-30s. The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is changing, but they think that the meanings behind them will continue. If they married a foreigner, they would want to have a modern wedding ceremony and each of their traditional wedding ceremonies. Second, they have no educational experience about traditional wedding culture(85.4%). Some people who

\* 이 논문은 2009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처자: 주영애 (jyoungae@sungshin.ac.kr)

have educational experience learned about traditional wedding culture from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Third, most traditional wedding procedures were influenced by Korean customs. Most men did not know about traditional Korean wedding procedures. But if they get married, they will follow traditional wedding procedures (M=3.35). In the future, we will have to succeed Korean wedding culture, for example, Peau back(幣帛), Ham(函), and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Key Words** : 한국전통혼례(korean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혼례절차(wedding procedure), 혼례문화(Wedding culture)

## I. 서론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혼례는 예로부터 인륜지대사로 여겨졌고,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과례의 하나였다. 그러나 조선조 말 개화와 서구문물의 수용과정에서 우리의 전통혼례문화는 형식과 절차상 많은 변화가 있었고, 오늘날에는 전통혼례를 지켜가는 경우도 많이 축소되었다.

혼례는 예로부터 대외적으로 혼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양가부모와 집안의 행사로, 체면유지를 각별하게 여겨왔던 의례다. 따라서 혼례 형식과 절차는 당사자는 물론, 집안의 어른들과 부모의 의견, 혼례의 관습까지 반영된 것이었다. 시대가 변화하고, 혼례형식도 서구화되어 가고 있지만, 이러한 혼례 절차나 관습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혼례문화의 면모를 엿볼 수 있으며, 중요한 의례로 지켜지고 있다.

오늘날 혼례형식은 서구에서 도입된 ‘현대화된 결혼식’을 일반적으로 따르더라도, 예식 후 시댁 어른께 인사를 드리는 전통혼례절차의 하나인 ‘현구고례’를 행하거나, 혼인 전에 납폐와 납채의 예를 지켜가고 있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이선영, 1992; 이지영, 1998; 김인옥, 2008), 이는 급속한 사회 문화변동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지켜지고 있는 한국전통혼례문화로 볼 수 있다. 그렇다

면 이러한 혼례절차는 지속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절차나 내용은 제대로 인식되고 있는가? 라는 문제의 제기는 앞으로 한국전통혼례문화에 대한 계승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바라고 여겨진다. 더욱이 오늘날 혼인은 혼인당사자의 의지가 모든 혼인의 과정 즉 배우자의 선택과 혼례형식 및 절차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혼례문화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혼례문화 계승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전통혼례의 절차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해보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자 시도되었다.

시대 변화에 따라 혼례 형식이나 장소 등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다양한 웨딩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개성 있는 결혼식이 유행하고 있다. 혼례 장소는 산이나 야외 나아가 상공이나 해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고, 그에 맞는 예복, 예식 절차를 따르는 등 새로운 혼례식도 나타나고 있다. 김인옥(2008)의 연구에서는 혼례문화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 줘야 할 사람들은 신랑신부와 그 부모를 상대로 예식업을 하고 있는 현장실무자들이라고 보았다. 물론 현장실무자들의 상담여부에 따라 혼례의 형식이나 절차 선택행동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혼례식과 관련한 어떠한 선택과 조건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혼인당사자의 뜻이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혼인할 사람들의 의식은 혼례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관점이 될 것으로 본다.

통계청(2008)의 혼인통계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2008년 혼인은 327, 700여건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했지만, 매해 증가되었다. 남녀 혼인 및 초혼 연령을 보면, 남성은 30대 후반(35-39세) 및 40대 초반의 혼인 및 혼인율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초혼여성의 56.8%는 25-29세인 20대 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혼인과 더불어 이혼, 재혼 등도 많아져, 앞으로 혼례는 일생의 한번이 아니라, 개인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통혼례문화 인식에 따라 그 형식과 절차가 달라질 것임은 자명하다. 또한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36, 204건으로 2000년의 11,605건보다 3배 이상 증가(통계청, 2008)하고 있어, 전통혼례문화에 대한 인식은 외국인과의 혼례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통혼례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문헌을 통해서 살펴보고 미혼남녀들의 한국전통혼례절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한국전통혼례문화의 계승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며 재조명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의의와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한국전통혼례문화와 관련된 연구는 혼례에 대한 의식 및 행동 연구, 전통혼례의 절차와 의미, 그와 더불어 시대변화에 따른 혼례문화 변천에 관한 연구, 혼례음식과 의복 등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혼례에 대한 의식 및 행동 연구로는 대학생들의 결혼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선영, 1993; 김은영 외, 1998;

이지영, 1998; 김영옥, 1999; 김영혜, 2006)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혼례의 주관자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식에 대한 연구(이윤금·서병숙, 1999; 정영숙 외, 2001; 황기아·이복희, 2004)가 있다. 또한 혼례의식조사로서 예식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시도한 연구(김인옥, 2008)가 있다. 전통혼례의 절차와 의미와 관련한 연구는 황경애(1994)의 박사학위 논문 이외에 혼례문화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길표·주영애, 1995; 이광자, 1999; 강정림, 2001; 홍나영 외, 2001; 이희재, 2002; 조국선, 2004; 이남희, 2005; 박동철, 2007; 김신연, 2009)가 있다. 한편 전통혼례의 사상이나 혼인규제 등의 연구(조국선, 2004; 이남희, 2005; 조희선, 2008)도 있으며, 전통혼례문화를 산업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 혼례음식연구(윤숙자·이미영, 2002; 김미정·윤혜연, 2007; 김준희, 2007)와 혼례복식 연구(양은희·윤형건·김경자, 2003; 박현미, 2003; 김소은, 2006; 이남옥, 2006) 등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 1. 전통혼례절차의 특징과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혼례절차를 중심으로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혼례문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오늘날 이는 어떻게 보전 변화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전통혼례절차에 나타난 특징을 선행 연구(이선영, 1993; 황경애, 1994; 이지영, 1998; 이희재, 1999; 김인옥, 2008)에서 논의되어온 선례 본례 후례의 기본 예를 중심으로 보면 선례에는 의혼, 납채, 납폐의 예가 속하며, 본례에는 신랑이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루고 신부를 맞아 오는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 본례의 중심이 되는 대례에는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 등이 포함된다. 한편 후례는 우귀와 현구고례가 포함된다. 이러한 한국전통혼례의 절차는 현재

일반인들에게는 증매, 사주보내기, 함보내기, 전통혼례식, 폐백, 신행 등의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

선례절차에서 계승되고 있는 절차로는 납채와 납폐로, 대부분은 '사주와 함보내기'로 알고 이어가고 있다. '함 보내기'에서 함 속에 넣는 물품으로는 재물을 뜻하는 노랑콩과 화목을 뜻하는 목화씨, 절개를 나타내는 차씨, 자손번창을 염원하는 수수나 차조, 득남을 원하는 마른 고추를 넣기도 했었는데, 이는 지방마다 집집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모가 자식의 앞날에 대한 축복과 기원이 담긴 기복이며 소원(임귀희, 2009, 13)의 의미였다. 함 보낼 때 넣는 물품으로 혼서지와 청홍양단, 패물, 계절 옷감, 곡식 등 다양한 물품을 넣어 보내는데, 간혹 납채에 해당하는 신랑의 사주단자를 함께 넣어 보내면서, 납채와 납폐가 혼합된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후례에 해당하는 우귀와 현구고례에서는 신랑신부의 부귀장수와 다남다복을 기원하는 혼례문화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현구고례에서 신부는 시가의 어른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올리게 되는데, 그때 폐백음식으로 시아버지께는 대추폐백을, 시어머니께는 고기폐백을 올리게 된다. 신부가 시부모께 절을 올리면, 시아버지는 대추를 던져주면서 다남과 다복을 기원한다. 시조부모가 살아계실 때에는 시부모님께 올렸던 폐백과 같은 종류의 또 다른 폐백음식을 준비하여 신부가 절을 올리게 되고, 다남과 다복의 기원을 받게 된다.

현구고례는 신부를 시댁의 대소가(大小家)에 소개하고 가문의 새 구성원으로 흡수하는 의식으로 매우 가부장적인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이러한 형식이 새롭게 바뀌어 가고 있다. 즉 신부만 절을 했던 형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가 함께 절하는 풍습으로 바뀌고 있으며, 절을 하는 범위도 시댁 어른들

만이 아니라 신부의 부모님도 참여하는 형식으로 되어 가고 있다. 홍나영·이은진·박선희 연구(2002)에 의하면 경상도 지역에서는 1970년대부터 서울지역에서는 90년대부터 폐백을 드릴 때 양가 어른들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주시는 대추가 갖고 있는 다남다복의 기원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폐백행사 중에 흥미로운 이벤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혼례가 가계계승이나 종족보존의 기능보다는 부부의 결합과 행복이라는 개인의 삶에 집중되어 있는 변화된 오늘날의 혼례의미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전통혼례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기보다는 가문대 가문의 결합적인 성격이 강했고, 혼인당사자 보다는 혼사를 주관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안간의 화합이나 답례를 표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길표·주영애(1995)의 '조선조 혼인의례 중 현구고례에 관한 연구'를 보면, 폐백을 통해 가족의 질서와 화합 등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구고례에서 신부의 절을 받는 가족들의 서열을 보면, 시부모, 시조부모, 백숙부모, 형제자매, 조카 등으로 되어 있다. 이는 연장자인 시조부모보다도 혼례의 주관자인 시부모가 우선 절을 받았었다는 일련의 형식을 볼 때 의례를 위한 가족 간 질서를 강조해 왔음을 볼 수 있다. 폐백을 받은 시가에서는 폐백 후 다음날 아침 새 신부를 위해서 큰상을 마련해 줌으로써 구교예지를 표한 것은 폐백 음식을 보내온 사돈댁에 대한 답례의 의미도 담겨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양가화합의 답례인사를 나누었다고 하겠다.

문헌고찰에서 보면, 한국전통혼례의 절차에서는 각 절차에서 사용되는 물품과 절차에서의 상징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자녀에 대

한 축복과 기원, 부귀장수, 가계계승, 다남과 다복기원, 양가의 화합과 답례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혼례절차에 대한 의식과 행동연구

혼례절차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선행 조사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연구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전통혼례의 절차 중에서 ‘함’과 ‘폐백’ 절차를 계승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광자(1999)연구에서는 광복이후 우리나라 혼·제례의 변화에 관해서 연구한 바,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의 혼례식은 고려시대까지의 전통문화에다가 조선시대의 유교문화, 일제시대인 20세기 초에 도입된 신식 혼례에서 일제와 서구문화의 요소가 가미되어 복합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중 사주와 함을 지지하는 이념체계인 과거의 민간 신앙은 앞으로 그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어 갈 것이며 폐백의 절차 또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산물로서 양계제 가족가치가 확산됨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폐백절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다.

정영숙·권수에·장혜자의 연구(2001)에서는 대학생들과 어머니들이 원하는 결혼식의 형태를 조사한 바, 대학생들의 경우, 전통혼례절차 중 함 들이기의 필요도는 낮은 반면에, 사주교환이나 폐백에 대한 필요도는 중간점수를 상회하는 필요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김미정·윤혜현 연구(2007)에서는 서울시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폐백을 올리는 의식의 절차와 그에 필요한 음식에 관해서는 55.7%가 모른다고 답하여,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영숙 외 2인의 연구(2001)에서는 전통혼례인 육례에 대한 의식정도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들의 지식정도를 보면, 폐백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잘 알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황기아·이복희(2004)의 연구에서도 전통생활문화인 혼례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현대사회에 적합한 혼례규범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혼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즉 전통혼례문화가 갖고 있는 우리의 정신문화와 그 상징성 등을 계승해야한다는 점에서는 많은 연구에서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일반인들의 의식과 행동에서는 과연 이러한 혼례문화의 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현실을 간과 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선행연구를 고찰해 본 결과, 혼례의식이나 절차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남녀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김미정, 윤혜현: 2007, 정영숙외: 2001, 이윤금, 서병숙: 1999) 연령(김미정, 윤혜현: 2007, 김인옥:2008), 종교와 학력(김미정, 윤혜현: 2007, 김인옥: 2008), 이외에도 가족수, 형제수, 혼례 가치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와 문헌을 통해서 볼 때, 한국전통혼례문화의 계승을 위해서 혼례절차에 대한 미혼자들의 인식조사는 기초자료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미혼남녀는 혼례의 모든 과정에서 주체가 되고 있고, 그들의 각각의 의식은 선행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되었듯이 각 절차에서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함과 폐백 절차는 지켜지고 있는 절차이기는 하나 그 필요성과 계승여부, 이에 대한 지식 정도는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혼남녀를 중심으로 이러한 전통혼례절차의 수용, 교육경험, 선택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전통혼례문화의 계승을 위한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III .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문헌고찰을 토대로 하여 한국전통혼례문화의 계승을 논의하기 위한 혼례절차에 대한 미혼남녀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한국전통혼례절차에 대한 수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한국전통혼례절차에 대한 교육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한국전통혼례절차와 방법에 대한 선택은 어떠한가?

#### 2. 조사도구 및 척도 구성

조사 도구는 선행연구(이선영, 1992; 황경애, 1994; 이지영, 1998; 김인옥, 2008)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의 일반적 사항 5 문항과, 한국전통혼례절차에 대한 수용 및 교육경험 관련 문항 11문항, 희망하는 결혼식 1 문항, 따르게 될 전통혼례절차 7문항 등 총 24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따르게 될 전통혼례절차 문항은 절대 따라하지 않을 것이다 1점, 하지 않을 것이다 2점, 경우에 따라 다르다 3점, 하게 될 것이다 4점, 반드시 할 것이다 5점을 부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전통혼례절차를 따를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조사는 서울 경기소재 공공기관 및 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의 경우,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비

해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갖고 있고, 보수적인 성향을 보일 것으로 사료되었고, 더욱이 국가 행정과 사무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치에 있어, 그들의 인식은 앞으로 이와 관련한 한국전통혼례문화에 대한 재조명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김미정·윤혜현(2008)연구에 의하면 한국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대학생의 부모직업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공직자의 경우 전통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혼례의 식절차와 혼례음식 폐백절차에 대한 인식에서도 부모의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근거로 조사대상을 공공기관 및 학교의 교직원으로 설정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는 2009년 4월 20일부터 2009년 6월 1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 25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 및 학교의 직원을 중심으로 4명의 조사원이 직접방문 하여 설문지를 배부,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문항의 부실기재나 무응답 자료 44부를 제외하고 총206부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는 SPSS v.14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빈도분석,  $\chi^2$ -test, t-test 등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연구문제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난 성별에 따른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한국전통혼례문화라 함은 조선조의 혼례문화로 제한하여 논의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혼례문화 계승차원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혼례절차를 중심으로 하여 이에 대한 수용이나 교육경험, 선택 등으로 국한하여 연구되었다는 점과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 및 학교의 직원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조사 결과를 확대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결과 및 분석

#### 2. 한국전통혼례절차에 대한 수용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주로 여성이 많았고(62.1%), 학력은 대학졸업(73.3%)이며, 26세~30세(50.5%)인 경우가 50%를 상회하였다. 그리고 종교는 기독교인 경우가 57.8%로 가장 많았다.

적절한 결혼연령은 30세~35세미만(52.4%)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세미만(38.8%)이 많았다. 2008년 혼인통계(통계청, 2009)에 의하면 평균 초혼연령이 남자는 31.4세, 여자는 28.3세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각각 0.3세 및 0.2세 증가하였다고 한 자료를 참고해 볼 때, 일반적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일 때 결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표 2>의 결과에서 보면 조사대상자들은 한국전통혼례절차에 대한 수용에 있어서 형식은 변화하지만, 정신은 이어가야 한다(61.2%)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전통혼례절차 원형 그대로 이어가야한다는 경우도 10.7%에 이르러, 전통혼례절차에 대한 계승의 의지를 볼 수 있다. 이윤금, 서병숙(2001) 연구에서도 혼례관련 가치관 중에서 절차중시성향은 다른 가치관보다 높게 나타난 바 있다. 한편 제 변인별 한국전통혼례절차 수용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선행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학력, 연령, 종교, 적절한 결혼연령 등의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성별에서는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들의 경우는 혼례의 형식과 절차는 개인적인 선택이므로 논의할 가치가 없거나 별로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경우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형식은 변화하지만 정신은 이어가야 한다는 면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높은 반응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경우는 72.2%가 이에 대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전통혼례문화의 계승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하겠다. 단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형식은 변화하더라도 정신은 이어가야 한다는 실천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되어가면서, 위에서 제시하였듯이 외국인과의 혼례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표 3>에서 보면,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할 경우 혼례식절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인 현대 결혼형식을 따르겠다는 경우(37.4%)가 가장 많았고, 각자의 고유 혼례식을 각각 해본다는 경우(35.9%)가 그 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N=206)

구분		N	%
성별	남성	78	37.9
	여성	128	62.1
학력	전문대학졸업이하	41	19.9
	대학졸업	151	73.3
	대학원졸업이상	14	6.8
연령	25세이하	50	24.3
	26세~30세미만	103	50.0
	31세이상	53	25.7
종교	불교	11	5.3
	기독교	121	58.7
	천주교	26	12.6
	무교	48	23.3
적절한 결혼연령	30세 미만	80	38.8
	30세~35세미만	108	52.4
	35세 이상	18	8.7

〈표 2〉 성별에 따른 한국전통혼례절차에 대한 수용(N=206)

구분		남성 N(%)	여성N(%)	계 N(%)	
전통혼례 절차에 대한 인식	전통혼례원형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	8(10.3)	14(10.9)	22(10.7)	$\chi^2 = 27.411^{***}$ df = 4
	형식은 변화하지만, 정신은 이어가야 한다	33(42.3)	93(72.2)	126(61.2)	
	시대에 잘 맞지 않으므로 전통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7(9.0)	5(3.9)	12(5.8)	
	혼례형식과 절차는 개인의 선택이므로 논의할 가치가 없다	12(15.4)	11(8.6)	23(11.2)	
	별로 생각해 본적이 없다	18(23.1)	5(3.9)	23(11.2)	

\*\*\*P<.001

음으로 많았다. 또한 이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기대빈도의 수가 5이하인 경우가 나타나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 결과로 볼 때 배우자 간에는 각자의 민족과 문화에 대한 존중의사를 갖고 혼례식을 하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랑신부 각자가 자국의 전통혼례문화에 대하여 알고,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표 3〉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할 경우의 혼례식절차(N=206)

문항	N(%)
한국전통혼례절차와 형식으로 한다	10 (4.9)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한다	22(10.7)
각자의 고유혼례식을 각각 해본다	74(35.9)
일반적인 현대 결혼형식을 따른다	77(37.4)
잘 모르겠다	23(11.2)

### 3. 한국전통혼례절차에 대한 교육경험

조사대상자들이 한국전통혼례절차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 교육 받은 경험이 없는 것(85.4%)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기대빈도수가 5이하인 경우

가 있으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남성의 경우는 거의 배운 경험이 없는 것(97.4%)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배운 경험이 있는 경우가 22.7%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들에게 이와 관련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영숙 외 2인의 연구(2001)에서 전통 혼례의 육례절차에 대한 지식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다.

〈표 4〉 성별 전통혼례절차 교육경험 유무

구분		남성 N(%)	여성 N(%)	전체 N(%)
전통혼례 절차교육 경험유무	있다	2(2.6)	29(22.7)	31(14.6)
	없다	76(97.4)	99(77.3)	175(85.4)
	계	78(100.0)	129(100.0)	206(100.0)

<표 5>에는 혼례절차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로를 살펴보았다. 주로 학교 다닐 때(6.3%), 사람들과 대화하면서(4.4%), 부모님과 가족을 통해서(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가르침은 일부 가정 내에서 구전으로 관습처럼 이어져 오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표 5〉 한국전통혼례절차에 대한 교육경험

구분		N	%
한국 전통혼례 절차에 대한 교육경험 경로	부모님과 가족을 통해서	8	3.9
	학교 다닐 때 배워서	13	6.3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1	0.5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9	4.4
	교육경험 없다	175	85.4
	소계	206	100.0

#### 4. 한국전통혼례절차와 방법의 선택

혼일할 경우, 각 세부적인 한국전통혼례절차를 따라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6>과 같다. 이는 각 절차내용에 따라 절대하지 않을 것이다 1점, 하지 않을 것이다 2점, 경우에 따라 다르다 3점, 하게 될 것이다 4점, 반드시 할 것이다 5점으로 점수화한 결과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혼례절차를 선택하고자 하는 바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혼례절차는 선행연구에서 고찰한바와 같이 선례에서부터 본례, 후례에 이르는 세부적인 절차로 이는 현재 현대식 혼례절차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다.

결과에서 보면, 전통혼례의 각 절차를 선택해서 따를 것인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5점 만점에서 3점을 상회하는 정도로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에서는 선택하고자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특히 폐백 올리기(3.82)나 예물과 예단주고 받기(3.58), 함보내기과 함들이기(3.45), 이바지음식(3.37)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전통혼례절차에 따라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혼서지나 택일단자 주고받기, 폐백 올리기 등은 남녀에 따라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성들의 경우에 대한 점수가 각각 높아, 이러한 절차를 따

〈표 6〉 혼인할 경우 다르게 될 한국전통혼례절차의 성별 차이

혼례절차(남녀전체 M)	N		M	S.D	t	P
사주단자 주고받기(3.07)	남	78	2.82	.894	-3.233	.575
	여	128	3.23	.862		
혼서지 주고받기(3.07)	남	78	2.83	.746	-3.186	.011*
	여	128	3.22	.896		
택일단자 주고받기(3.09)	남	78	2.91	.759	-2.462	.019*
	여	128	3.20	.833		
함보내기과 함들이기(3.45)	남	78	3.12	.926	-4.350	.938
	여	128	3.66	.827		
폐백 올리기(3.82)	남	78	3.55	.832	-3.759	.031*
	여	128	3.98	.784		
예물과 예단 주고 받기(3.58)	남	78	3.28	.881	-4.053	.438
	여	128	3.77	.798		
이바지 음식(3.37)	남	78	3.05	.966	-4.002	.970
	여	128	3.56	.839		

\*  $P<.05$

르고자 하는 가능성이 남성 보다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지영의 연구(1998)에서도 조사 대상 대학생들의 경우, 전통혼인의례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용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고, 폐백의 예에 대해 가장 수용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폐백례는 보다 보편적인 전통혼례절차로 계승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김미정·유혜현(2007)의 선행연구에서는 혼례에서 고쳐야 할 부분으로 혼수예물, 혼례식의 과정, 함을 받는 행사와 폐백의 식 순으로 응답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혼례음식이나 폐백의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응답이 많아, 실제로 전통혼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고 해석하였다. 폐백절차를 계승해야한다는 것은 정영숙 외 2인의 연구(2001)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었다. 한편 예식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인옥의 연구(2008)에서는 예물과 예단(41.9%), 이바지(17.1%) 등이 불필요한 혼례관습이라고 조사되었으며, 폐백이나 함, 사주단지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경우가 매우 낮았다. 오히려 계승해야할 관습으로 폐백(27.1%), 전통혼례식(23.3%), 사주단지(11.6%) 등을 제시하여, 폐백절차를 계승하고자 하는 경향은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통혼례절차에서 구체적인 혼례방법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은 <표 7>과 같이 결과를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사대상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선택의 차이만 나타났고, 연령이나 학력, 종교별로는 기대빈도수가 적게 나타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함을 보낼 때 넣는 물품은 혼서지와 청홍양단, 패물, 계절옷감을 넣는다(32.5%)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혼서지와 청홍양단을 넣는다(21.8%)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김인옥(200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P<.001$ ), 남성의 경우는 기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32.1%), 여성의 경우는 혼서지와 청홍양단, 패물, 계절옷감을 넣는다는 비율(41.4%)이 가장 많았다. 남성의 경우, 이에 관한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97.4%)(<표 4> 참조)함을 보낼 때 넣는 물품에 대해 알지 못해서, 기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함에 들어가는 곡식류는 재물이거나 자손번창, 절개, 득남, 축복과 기원 등의 의미를 담고 있으나, 오늘날 이에 대한 내용을 선택하고자 하는 비율이 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9.2%) 혼례절차에 나타나는 전통혼례의 상징적인 의미나 가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함보내기 행사에서 함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는 대부분 신랑친구가 한다(66.5%)고 하였으며,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16.0%)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폐백을 올리는 대상은 신랑신부 부모님(35.0%)이 가장 많았으며, 신랑신부 부모님과 신랑의 일가친척(27.2%)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에 대한 남녀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P<.001$ ), 남성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30.8%)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신부의 경우는 신랑신부 부모님께 드린다(40.6%)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과거에는 신부가 신랑의 부모님과 일가친척에게 인사를 드리는 형식이었으나, 홍나영 외 2인의 연구(2001)에서도 제시되었듯이 경상도에서는 70년대 이후 서울지역에서는 90년대 이후 신랑신부 부모님께 폐백을 드리는 형식이 나타났다고 한 바를 보면,

〈표 7〉 한국전통혼례방법 선택에 대한 성별 차이

(남성N: 78/여성N: 128)

구분		남성N(%)	여성N(%)	전체N(%)	
함 보낼 때 넣는 물품	혼서지와 청홍양단	17(21.8)	28(21.9)	45(21.8)	$\chi^2 = 33.144^{***}$ df = 4
	혼서지와 청홍양단, 곡식 (콩, 팥 등)	8(10.3)	11(8.6)	19(9.2)	
	혼서지와 청홍양단, 패물, 계절옷감	14(17.9)	53(41.4)	67(52.5)	
	패물, 4계절옷감, 기타 예물	14(17.9)	30(23.4)	44(21.4)	
	기타	25(32.1)	6(4.7)	31(15.0)	
함 보내기 행사에서 함전달자#	신랑친구	51(65.4)	86(67.2)	137(66.5)	$\chi^2 = 8.857$ df = 3
	신랑의 형제나 일가친척	7(9.0)	12(9.4)	19(9.2)	
	신랑	2(2.6)	15(11.7)	17(8.8)	
	상황에 따라 다르다	18(23.1)	15(11.7)	33(16.0)	
폐백 올리는 대상	신랑 부모님	11(14.1)	14(10.9)	25(12.1)	$\chi^2 = 28.155^{***}$ df = 4
	신랑, 신부 부모님	20(25.6)	52(40.6)	72(35.0)	
	신랑 부모님과 일가친척	9(11.5)	13(10.2)	22(10.7)	
	신랑 신부 부모님과 신랑 일가친척	14(17.9)	42(32.8)	56(27.2)	
	상황에 따라 다르다	24(30.8)	7(5.5)	31(15.0)	
준비할 폐백음식	대추폐백, 고기폐백	5(6.4)	14(10.9)	19(9.2)	$\chi^2 = 24.830^{***}$ df = 4
	대추폐백, 고기폐백, 닭폐백	5(6.4)	7(5.5)	12(5.8)	
	대추폐백, 고기폐백, 닭폐백, 구절판	6(7.7)	23(18.0)	29(14.1)	
	대추폐백, 고기폐백, 닭폐백, 구절판, 술	13(16.7)	47(36.7)	60(29.1)	
	잘 모르겠다	49(62.8)	37(28.9)	86(41.7)	
신혼여행 후 처음 방문장소#	신랑본가	9(11.5)	24(18.8)	33(16.0)	$\chi^2 = 21.297$ df = 3
	신부친정	24(30.8)	70(54.7)	94(45.6)	
	신랑 신부가 살 집	4(5.1)	6(4.7)	10(4.9)	
	상황에 따라 다르다	41(52.6)	28(21.9)	69(33.5)	

\*\*\* P<.001

# 기대빈도수가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음

실제로도 이와 같은 형식이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준비할 폐백음식으로는 잘 모르겠다(41.7%)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성별로 그 차이를 보면(P<.001), 남성의 경우는 모르겠다는

경우가 가장 많아 62.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대추폐백, 고기폐백, 닭폐백, 구절판, 술을 준비한다는 경우가 가장 많아 36.7%로 나타났다. 김미정·윤혜연 연구(2007)에서도 폐백 의식의 절차와 필요한 음식

(표 8) 성별 희망하는 결혼식

(남성N:78/여성N:128)

구분	남성 N(%)	여성N(%)	계 N(%)	
한국 전통혼례	16(20.5)	38(29.7)	54(26.2)	$\chi^2=16.687^{***}$ df=3
일반예식장결혼식	12(15.4)	19(14.8)	31(15.0)	
종교기관결혼식	3(3.8)	25(19.5)	28(13.6)	
개성 있는 결혼식	47(60.3)	46(39.5)	101(45.2)	

\*\*\* P<.001

에 관해서는 55.7%가 잘 모른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폐백음식도 지방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예로부터 대추폐백과 고기폐백을 기본으로 하였고, 고기폐백을 사용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닭폐백으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폐백으로 준비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를 잘 알고 하는 경우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혼여행 후 처음 방문하는 곳에 대한 응답에서는 신부친정(45.6%)으로 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33.5%)가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김인옥(200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한편 남성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52.6%)가 가장 많은 반면에 여성은 신부친정으로 간다는 경우(54.7%)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도 남성들의 경우, 전통혼례절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정영숙 외 2인의 연구(2001)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혼례절차에 대하여 여성의 경우는 학교에서 배운 경험이 있지만, 남성의 경우는 그와 관련한 학습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보면, 이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거로부터 우리의 혼인관습으로는 서류부가의 혼속이 있어왔고, 이러한 혼속이 신혼여행 후 신부집을 방문하여 하루를 지내고, 신랑의 본가로 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대상자들이 희망하는 결혼식은 개성 있는 결혼식(45.2%)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으며, 그 외로는 한국 전통혼례(26.2%), 일반예식장결혼식(15.0%), 종교기관결혼식(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미정·윤혜현(2007, p.143)의 연구에서도 한국식으로 혼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경우는 11.1%였고, 그저 그렇다는 경우는 45.5%, 원치 않는 경우는 44.4%로 나타나, 대부분은 일반예식을 하게 되고, 전통혼례식은 일부에서 이어져 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일반예식장결혼식이나 종교기관의 결혼식보다는 전통혼례식을 희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난 이와 같은 결과는 전통혼례문화의 계승차원에서 볼 때 희망적이라고 판단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문헌과 선행연구에 나타난 한국전통혼례문화에 대하여 특성과 절차, 혼례의식과 행동 등을 고찰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직에 근무하고 있는 미혼남녀를 중심으로 전통혼례절차에 대한 인식을 조사 연구하였다. 연구문제별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통혼례문화 계승을 위한 몇 가지 논의를 하였다.

첫째, 한국전통혼례절차에 대한 수용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전통혼례절차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만, 전통혼례문화의 정신은 이어가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외국인 배우자로 맞이하게 될 경우, 혼례식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현대 결혼형식을 따르거나 서로를 중중하는 의미에서 각 고유의 혼례식을 해 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던 것을 볼 때, 한국전통혼례문화 계승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혼례문화는 형식과 절차로 표현되며, 이를 지키고 이어가는 개개인의 선택행동으로 계승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통혼례의 형식과 절차가 없이 서구화된 혼례형식 속에서 전통의 정신만 이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전통혼례문화의 정신은 문헌고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신랑신부 양가의 존중과 가족의 질서와 화합, 답례, 자손의 번창, 축복과 기원, 다복, 부부의 결합과 행복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혼례문화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전통혼례절차에 담겨있는 상징성과 의미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다.

둘째, 전통혼례절차에 대한 교육경험은 매우 낮았고,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는 일부 학교에서 배우거나 가족들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전통혼례절차에 대한 남성의 인식이 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남성의 경우는 대부분 '잘 모르겠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등의 불확실한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전통혼례절차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아, 확신 있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교육적인 기회가 확대되고, 남녀 공통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중고등학교의 기술과정 과목에서의 전통문화교육이나 대학의 교양과정 그리고 사회교육으로 진행되는 예비부부 교육 프로그램, 매스컴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 구안 등은 그 교육적 의의가 크

다고 본다.

셋째, 전통혼례절차 및 방법의 선택은 중 계승되어야 할 절차로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제시된 바는 함, 폐백, 예물과 예단 등의 절차이다. 특히 이중 폐백은 다른 절차보다도 대부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앞으로도 폐백은 지속될 수 있는 혼례절차이며 한국전통혼례문화를 상징하는 것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전통혼례문화에 대한 가치를 계승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행위에 있어서는 다수가 하는 일반적인 방식대로 행동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사회전반적인 물질주의 및 상업화의 경향이 맞물려 계승해야 할 혼례절차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있어서 혼례를 치를 때 제반 절차에서는 혼인당사자의 주체적인 인식하에 선택행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전통혼례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고 선택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식을 한다면, 한국전통혼례를 하고자하는 비율은 개성 있는 결혼식을 택한다는 경우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 일반예식장 결혼식이나 종교기관결혼식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통혼례문화의 계승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과 표본 수의 제한으로 연구결과를 확대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현재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재조명과 가치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전통혼례문화의 계승을 위해 시도한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전통혼례문화의 계승을 위해서는 전통혼례절차의 의미와 상징성을 시대적 가치에 부합될 수 있는 절차에 접목시킨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로는 폐백의 가치나 의미를 살리면서 현대에 맞게 계승시킬 수 있

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나 함에 대한 연구, 전통혼례식의 활성화 방안연구, 전통혼례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등 실용적 응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1) 강민석(2006). 한국전통혼례연구,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17(2), 29-60.
- 2) 강정립(2001). 한국사회변동과 혼례문화의 변화: 1940년대-199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경자(2005). 전통생활문화와 혼례의 실제. 한국가정과학회지 8(4), 3-4.
- 4) 김미정, 윤혜연(2007). 서울시내 대학생의 통과의례와 음식에 관한 인식조사 1보-백일, 돌과 혼례.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23(1), 140-149.
- 5) 김소은(2006). 현대혼례에 나타난 전통혼례 복의 변천과 실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신연(2009). 한국 전통예절 문화의 원리-혼례, 제례, 다례를 중심으로. 문명연지 9(2), 165-197.
- 7) 김영혜, 이내영(2006). 대학생들의 출산관과 결혼관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19, 37.
- 8) 김은영 외 8명(1998). 대학생의 결혼관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생활과학 31, 90-94.
- 9) 김인옥(2008). 예식업종사자의 전통혼례에 대한 의식과 태도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7(6), 1181-1195.
- 10) 김준희(2007). 혼례음식에 대한 인식도 조사와 이용실태 비교: 서울 경기지역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김영옥(1999). 우리나라 여대생의 배우자 선택 및 결혼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1), 29-43.
- 12) 권병숙(2007). 이재 [사례편람]의 혼례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13) 박동철(2007). 청운마을 혼례문화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박범수(1999). 혼례의 근본정신과 혼례의식의 개선. 서울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 25, 57-82.
- 15) 박현미(2003). 조선시대 신분에 따른 여자 혼례복연구: 궁중과 민가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서수용(2001). 조선 <한>민족 전통예절 심포지움: 한국 혼례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 모색. 동양예학 6, 113-128.
- 17) 안혜숙, 주영애, 김인옥(2002). 한국의 가정의례와 세시풍속. 서울 : 신정.
- 18) 양은희, 윤형건, 김경자(2003). 조선시대 전통혼례복에 나타난 색채의 특징연구. 디자인학연구 16(3), 231-242.
- 19) 윤숙자, 이미영(2002). 서울지역 주부들의 혼례음식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7(5), 569-577.
- 20) 이광규(1997). 우리나라의 혼례문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2(2), 203-206.
- 21) 이광자(1999) 광복이후 우리나라 혼·제례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 153-187.
- 22) 이길표, 주영애(1994). 조선조 혼인의례 중 현구고례에 관한 연구. 생활문화연구 8, 217-231.
- 23) 이남옥(2006). 전통혼례복을 응용한 한국적 웨딩드레스 개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이남희(2005). 한국혼인의 연속과 변화: 전

- 통혼인정신의 현대적 재조명을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이배용(1999). 개화기 일제시기 결혼관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한국 근현대사연구 10, 214-245.
- 26) 이선영(1993). 혼례행례의 의식과 수행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이윤금, 서병숙(1999). 도시민의 혼례의식에 대한 관련요인분석: 미혼남녀와 혼인적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4), 111-124.
- 28) 이지영(1998). 전통사회 혼인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조사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9) 이희재(2002). 혼례의 철학적 의미. 유교사상연구 17, 83-103.
- 30) 임귀희(2009). 한국전통혼례의 예학적 탐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1) 장문희, 홍정민(2008). 전통혼례복의 문양을 응용한 웨딩드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6(2), 97-103.
- 32) 정영숙, 권수애, 장혜자(2001). 충북지역 대학생과 그들의 어머니의 혼례관련 의식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0(2), 165-178.
- 33) 조국선(2004). 전통혼례의 사상적 기반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4) 조천래(2008). 전통혼례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 한국전통문화학회 문화재학 5, 291-326.
- 35) 조현호, 유정봉(1993). MARKETING 관점에서 본 우리 여가 연구 -전통혼례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7, 156-166.
- 36) 조희선(2008). 조선조 혼인규제와 실제에 관한 소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29-47.
- 37) 홍나영, 이은진, 박선희(2001). 20세기 한국의 혼례문화 변천에 관한 연구-서울과 경상도의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1), 141-156.
- 38) 황기아, 이복희(2004). 주부의 가치성향과 혼례의식·혼례행태와의 관계, 한국가정과학회 2004년도 학술대회, 113.
- 39) 황경애(1994). 혼례행례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5). 세계의 혼인문화. 서울 : 외국어대학교출판부.
- 41) 한스타일. <http://www.han-style.com>.
- 42)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투 고 일 : 2010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0년 1월 8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2월 22일